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07

JULY 2016

vol.19

MONTHLY MAGAZINE



표지 작품 '바다'

파도에 맞서야 바다의 깊이를 알듯이,

인생도 어쩌면 오늘 맞닿은 높은 벽을 뚫고 나갈 때 깊어지고 성장한다.

캘리그래피스트 이상현 작가

〈해를 품은 달〉 〈타짜〉 〈국순당 우국생, 백세주〉 〈교촌치킨BI〉

2015. 한글날 기념 Google 한글로고 제작

2015. 한국브랜드 대상 수상 (한국CPI협회)

사.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부회장, 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상임이사, 한국미술협회 이사,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 흐르고

이해인의
'나를 키우는 말' 중에서
서터 이상현  쓴다.

당신은
혼자 여행을 떠나
본 적이 있나요?



Have you
ever traveled
alone?

여행은
그리움이다

‘배들의 이름에는 선주들의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선주들은 자신의 배에 어린 시절 고향 동리의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젊은 날 자신이 사랑했던 연인의 이름이나 술 이름을 적어놓은 로맨티스트도 있다. 먼 이국의 항구 이름을 따오기도 하고... 그 이름들의 의미를 다 모아 놓으면 그것이 그대로 한 포구가 지닌 그리움의 실체가 되리라’

‘곽재구의 포구 기행’ 중 한 대목이다. 남도 땅을 홀로 여행하며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것들을 작가는 특별한 그리움으로 그린다. 우리는 여행을 떠난다. 특별히 보고 싶은 곳이 있거나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 새로운 자극이 필요할 때 낯선 세계로의 여행을 꿈꾼다.

우리는 여행을 떠난다. 만약 당신이 힘들고 외롭다면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 누구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는 낯선 곳에서 오롯이 타인이 아닌 나의 시선으로 나를 마주하는 것, 바로 여행이다.

여행은 그리움이라고 누군가는 말한다. 어쩌면 그 말은 살아가며 서서히 잃어버리는 나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 아닐까. 혼자만의 여행은 단순히 낯선 공간을 구경하기 위함이 아닌, 잃어버린 나를 찾는 시간일 것이다.

낮선 곳에서 낮선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떠들썩하고 북적거리며 떠나는 ‘함께 하는 여행’도 즐겁지만,
잠시나마 자신의 힘든 시간을 떨쳐버리는데도 여행은 더없이 좋은 처방약이다.
아마도 이는 오래된 여행자 이지상 작가도 비슷한 생각을 했나보다.

‘여행길에는 온갖 즐거움이 기다린다. 사람들의 따스한 인정, 아름다운 자연,
낯선 세상에서 만나는 신기한 풍물, 삶에 대한 깊은 사색 그리고 이 땅 위에 잠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사랑... 이런 여행의 기쁨을 한 번이라도 누린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들이
시든 과일처럼 얼마나 보잘것 없는가를 알게 된다.’

여행자 이지상의 ‘낯선 여행길에서 우연히 만난다면’에서 건져올린 대목이다.

그의 말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목직한 고민거리를 안고 무거운 마음으로 여행길에 올라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안고 있는 고민과 생각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복잡해진 마음을 훌훌 비우고
마음 속의 여백을 다시 만들 수 있다면 여행을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떠난 여행이 의미 없는 관광으로 끝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그렇게나 꿈꾸던 유럽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 나는 없었다고
누군가는 말한다. 자신이 무얼 보고 싶은지 어떤 것을 느끼고 싶은지 찾지 못하고
그저 책 속에 나오는 곳,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곳, 남들이 느낀 것에 비추어 자신의 생각을
대입하려니 진짜 여행이 아닌 가짜 여행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나의 눈이 아닌 남의 눈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기 때문이다.

진짜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나보자

남의 것이 아닌 나의 눈을 가지고,
나의 시간을 오롯이 느끼며 어딘가를 바라볼 때,
그곳이 어디가 되든 여행이 될 수 있다.
남들이 좋다는 유명한 여행지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나만의 특별한 시선이 있다면 동네 산책길도, 사람들 북적이는 시장통도,
작은 오솔길이 나 있는 동네 뒷산도 멋진 여행지다.
어쩌면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것을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아닐까.
삶은 여행이란 말은 그런 의미에서 적합한 표현이다.

어떤 이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설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린다고 한다.
오늘은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내 걸을 스쳐지나갈까.
오늘의 바람은 어떤 것이며, 집앞 나무는 어떤 모습일까.
혼자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길을 걷노라면
일상이 바로 혼자만의 여행이 되어 즐거움이 된다고 말한다.
혹자는 말한다. 여행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관광에는 돈이 필요하지만 여행에는 돈이 필요 없다.
여행이 가진 의미를 다시 되새긴다면 말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보자.
세상에 보여지는 허상으로서의 내가 아닌, 진짜 나를 찾는 여행.
그 시간만큼은 분명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일상적인 것들도 특별한 여행이 될 수 있다

CONTENTS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6년 07월호 vol.19
MONTHLY MAGAZINE. JULY 2016



08 행복을 주는 사람 | 이계진 방송인

아나운서 출신의 전 국회의원 이계진 씨가 서울을 떠나 산골로 스며든 지 20년째다. 최근 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진행을 맡으며 방송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주 활동 영역은 경기도에 자리 잡은 한적한 시골마을. 아나운서, 국회의원을 넘어 그의 또 다른 이름 ‘농부’로 행복한 인생 2막을 일구고 있는 이계진 씨를 만났다.



14 행복메신저 | 임선경 KEB하나은행 신영통지점 차장

이제 손님은 가식이나 겉치레보다 진실함, 솔직한 서비스를 원한다. ‘믿을 수 있는 상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손님이 원하는 최고의 서비스 덕목인 것이다. KEB하나은행 신영통지점 임선경 차장을 자타 공인 ‘서비스 고수’의 반열에 올려놓은 원칙도 바로 ‘솔직함’이다.



30 연금 포커스 | 개인연금법 제정된다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최근 정부는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을 발표했다.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연금의 양적 성장은 이뤄졌지만 연금 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연금관련 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예상되는 그 영향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6 경제 이슈 | 하반기 국내외 경제의 전개방향은?

올해 하반기에는 선진국이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경기부진으로 세계경제는 작년보다 낮은 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내 경제는 내수부양 효과 약화로 하반기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경기부양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하반기 국내외 경제 전개방향을 전망해본다.

OPENING	01	행복을 위한 질문
	02	당신은 혼자 여행을 떠나 본 적이 있나요?
INTERVIEW	07	행복을 주는 사람
	08	“차 한 잔, 밥 한 그릇의 일상이 행복이지요”
INFO GRAPHY	12	한눈에 보는 연금 세상
	12	여성 노령연금 수급

행복미래설계	14	행복메신저
	14	‘솔직함’으로 손님의 신뢰 얻는다
	16	H씨의 행복설계
	16	지출축소를 통한 추가저축과 더불어 주택·연금의 활용 필요
	20	지식 플러자 - 법률
	20	자녀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유언, 효력이 있을까?
	22	지식 플러자 - 상품소개
	22	연금계좌 이체
	24	Do! Dream
	24	생각을 그리다, 비주얼 씽킹(Visual Thinking)
	26	Anti aging
	26	건강 해법, 호르몬에서 찾다
	28	Alone, together
	28	꿀재미를 찾을 수 있는 ‘어른이’를 위한 장난감

연금이슈포커스	30	연금 포커스
	30	개인연금법 제정된다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경제 TREND	36	경제 이슈
	36	하반기 국내외 경제의 전개방향은?
	40	부동산 이슈
	40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 열풍, 파급효과는 불확실
GLOBAL	44	지구인 이야기
	44	스칸디나비아의 시니어 코하우징
FUTURE	46	은퇴, 버킷리스트
	46	말과 함께 한 특별한 교감 ‘승마’



이계진 • 방송인

“차 한 잔, 밥 한 그릇의 일상이 행복이지요”

아나운서 출신의 전 국회의원 이계진 씨가 서울을 떠나 산골로 스며든 지 20년째다. 최근 국방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진행을 맡으며 방송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주 활동 영역은 경기도에 자리 잡은 한적한 시골마을. 아나운서, 국회의원을 넘어 그의 또 다른 이름 ‘농부’로 행복한 인생 2막을 일구고 있는 이계진 씨를 만났다.

“시골생활을 한 지 올해 20년째입니다. 평소 자연을 좋아했었고, 집 사람의 건강문제도 있어서 시골을 선택했어요. 처음 시골에 내려갔을 때는 인기가 많을 때였죠. 박수와 조명이 끝날 때 방황할 것 같아서 미리 오리엔테이션 겸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자꾸 길어지는데,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 치열한 도시의 정글을 떠나 은퇴한 사람들은 지금 지루해지는 노후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이계진 씨는 이에 대한 고민을 일찍 시작했고, 지금 여유로운 자연의 땅을 구해 그곳에서 새로운 자연 속의 삶을 부지런히 일궈나가고 있다. 또 후배들에게 ‘자연 속에서 삶’을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한다.

부지런함의 유익을 깨우쳐주는 시골에서의 삶

그의 시골에서의 삶은 한 권의 책에 큰 영향을 받았다. 형님처럼 가깝게 지내며 삶의 멘토로 모셨던 법정스님이 권한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이라는 책이다. 이 책을 읽고 숲 속에서의 삶을 꿈꿔왔다고 한다.

“처음에 시골에 내려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나를 안 좋게 봤어요. 다들 제가 땅 투기를 하러 온 줄 알더군요. 처음엔 경계를 하더니 함께 농사를 짓고, 함께 술을 마시다보니 어느새 마음을 터놓게 되고, 이젠 마을사람들과 이웃사촌이 됐죠. 농법을 가르쳐주는 마을 주민도 있고, 경조사 때 초청하는 이웃도 생겼어요. 함께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같이 웃고 즐길 수 있는 사이가 됐습니다.”

시골생활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진정한 농부가 됐다. 경운기를 타고 시골을 누비고 다니는 가하면,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도 여럿 장만했다. 감자, 고구마, 고추 등 무려 25가지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원숭이 농법이라고 원숭이처럼 농부 흉내를 내다보니 제법 되더라구요. 옆에서 밭을 갈면 같이 갈고, 씨 뿌리고, 퇴비를 주다보니 어느새 땀 흘려 수확하는 행복에 빠져 살고 있더군요.” 농사일이 몸에 익어갈 무렵 동지도 생겼다. 모임 이름은 ‘전농회’로 건달 농민 모임을 줄인 말

이다. 교장선생님, 무역회사 사장, 건축사 등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우연한 인연으로 만나 끈끈한 농사 동지가 되었다고.

농사 이야기를 꺼내자 흘러나오는 거침없는 언변은 이미 프로 농부다. 쏟아붓는 열정, 노력만큼은 전업농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자신이 하는 농사는 전업농과 구별해 '취미농'이라고 칭한다. "농사일은 하다보면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어떤 일보다 고된 일이 농사입니다. 농사는 때를 놓치면 망치기 십상이라 하다보면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 같아요. 과욕을 부리지 않고 운동 삼아, 일삼아 밭을 일구다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건강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서울에 있었다면 지금처럼 건강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종일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보면 배가 고프고, 고된 일로 잠도 폭 자게 된다. 이런 생활에 불면증이 끼어들 틈이 없다. 또 정직한 노동은 세상사의 시름을 씻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농사예찬론을 펼친다.

시골생활로 생각의 속도를 조절하게 되는 점도 좋은 점 중의 하나다. 서울생활은 세상변화에 속도를 맞추느라 사색에 잠기기가 어렵다. 농사는 다르다. 성질 급한 사람은 짝이 나오지 않는다고 땅을 판다지만 좋은 농부는 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처럼 천천히 때를 기다리며 살게 되는 것이 시골에서의 삶이라고 말한다. 또 농사는 정직하다. 일한 만큼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농사를 짓다보니 매사에 '부지런함', '최선'의 삶의 방식이 익숙해졌다고 얘기한다.

“정치 입문을 앞두고 두 번을 찾아뵈었죠. 처음 찾아갔을 때 건네신 한 마디는 ‘거기가면 차(茶)맛을 모를 거요’, 두 번째는 ‘기도해보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오’였어요. 짧지만 강한 울림이 있는 말씀이었죠.”

법정스님과의 뜻 깊은 인연

그의 삶의 어려운 고비 때마다 법정스님이 있었다. 그는 법정스님을 인생의 스승처럼 여기며 살았다고 한다.

“저는 법정스님의 유발상좌(삭발하지 않고 은사님을 따르며 불법을 행하는 사람)”라며, 법정스님과 의지 못할 일화를 소개했다. ‘이계진이 정치를 한다’는 소문이 나자, 여러 당에서 그를 영입하려고 했다. 그때 그는 법정스님을 먼저 찾아갔다고 한다.

“정치 입문을 앞두고 두 번을 찾아뵈었죠. 처음 찾아갔을 때 건네신 한 마디는 ‘거기가면 차(茶)맛을 모를 거요’, 두 번째는 ‘기도해보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오’였어요. 짧지만 강한 울림이 있는 말씀이었죠.”

법정스님이 생전에 권한 책인 ‘월든’이나 ‘타사의 정원’도 유발상좌가 되면서 읽었고, 산골행을 결심한 것도 이때였다고 술회했다.

별탈 없는 일상이 행복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그는 “인생은 향다반사(恒茶飯事: 늘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처럼 예사롭고 일상적인 일)”라고 정의했다.

“예전엔 특별한 일, 이벤트를 기대했지만 지금에 와서야 깨달은 인생의 행복은 바로 별일 없는 일상”이라며, “차 마시고, 밥 먹으며 살아가는 일상이야 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고 말한다. 별일 없는 일상에 감사하며 항상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의 삶을 지탱해 온 철학이라고 강조한다.



개그콘서트로 트렌드 읽어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입담과 센스, 목소리로 현재까지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섬세한 눈길, 몸에 배인 정직하고 성실함은 그의 변함없는 진행 실력을 뒷받침하는 듯했다. 비결을 물었다.

“아무리 바빠도 요즘 젊은이들과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개그콘서트를 꼭 본다”며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방송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고백했다.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그는 젊은 시절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유머감각, 센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메모는 오랜 그의 습관이다. 덕분에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한 작가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그의 노력은 멈춤이 없을 예정이다. 이미 몇 권의 책을 저술한 경험이 있는 그는 최근 아나운서 선후배들과 공저로 책 발간을 준비하고 있으며, 소설도 하나 더 쓰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농부의 삶도 포기하지 않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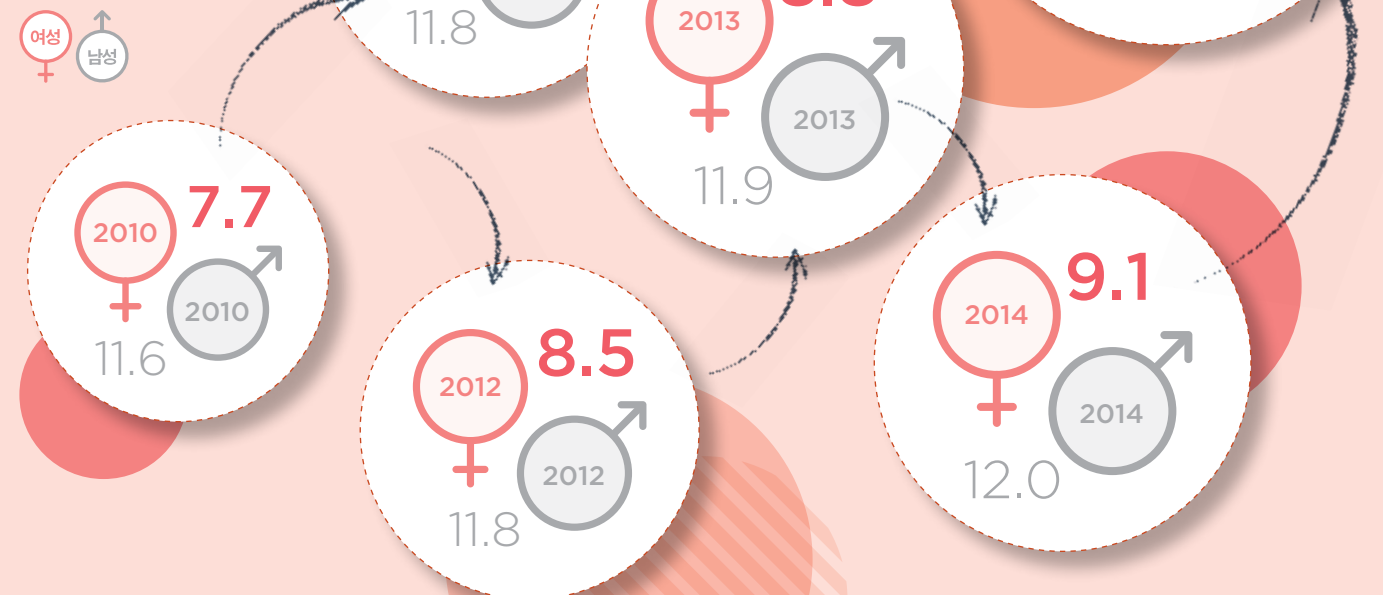
‘아나운서는 일상의 낭만과 멋이 있어야 한다’며 선배 이규향 아나운서가 지어 준 관봉(觀峯: 봉우리를 본다)이라는 호처럼 그만이 낼 수 있는 진한 멋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다.

여성 노령연금 수급

여성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100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10~30만원 수급자가 전체 74.7%로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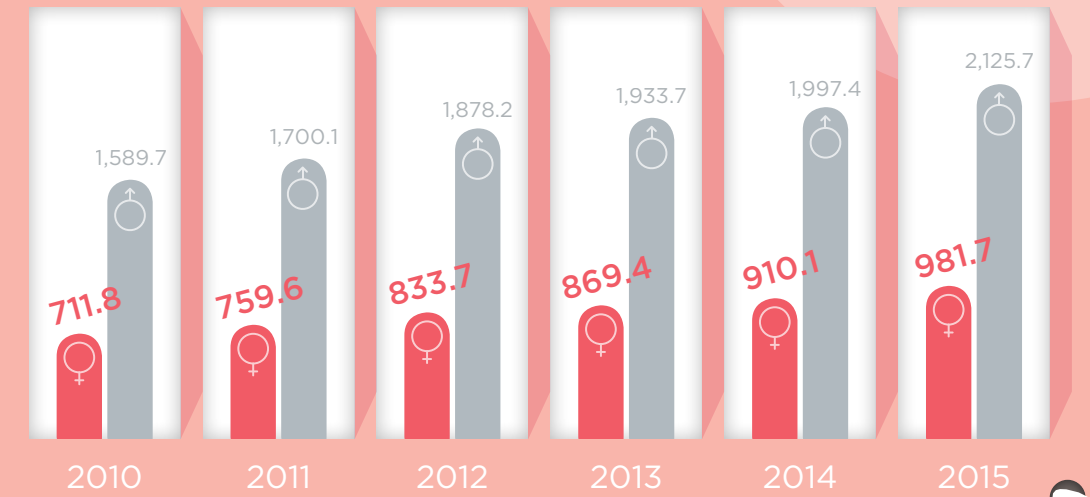
여성 국민연금 가입 동향

단위 : 백만 명
자료 :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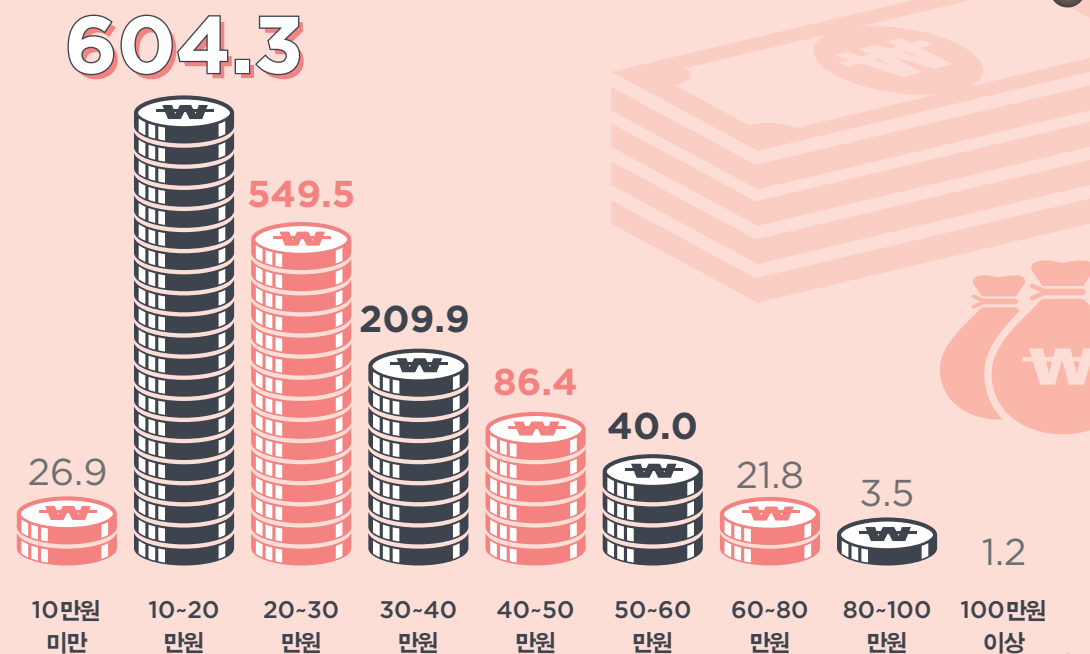
여성 노령연금 수급

단위 : 천 명
자료 :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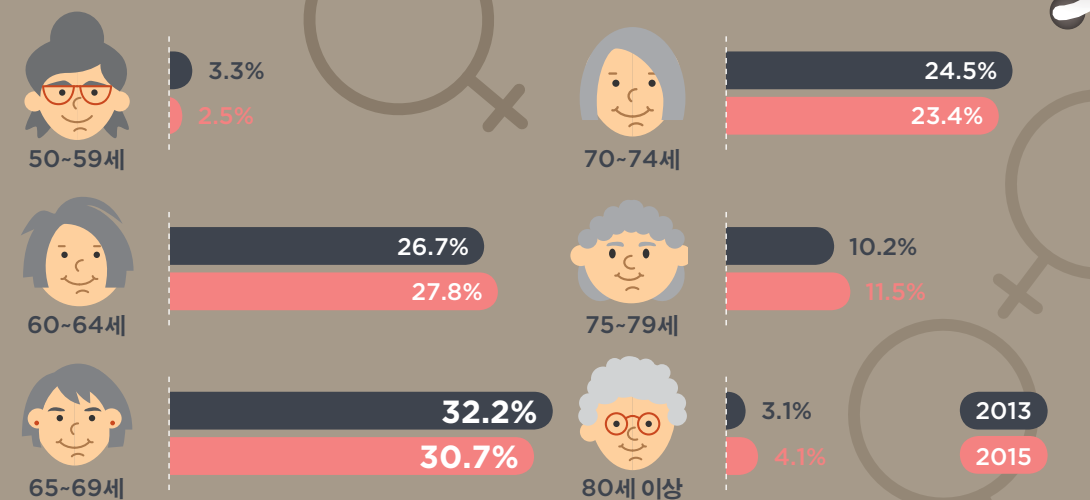
여성 연금액 규모별 수급 분포

단위 : 천 명
자료 : 국민연금
주 : 2015년말 기준
(노령+장애+유족)



여성 연령별 연금수급 분포

주 : 노령연금 기준
자료 : 국민연금



‘솔직함’으로 손님의 신뢰 얻는다

임선경 행복파트너
KEB하나은행 신영통지점 차장

이제 손님은 가식이나 겉치레보다 진실함, 솔직한 서비스를 원한다. ‘믿을 수 있는 상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손님이 원하는 최고의 서비스 덕목인 것이다. KEB하나은행 신영통지점 임선경 차장을 자타 공인
‘서비스 고수’의 반열에 올려놓은 원칙도 바로 ‘솔직함’이다.

“유행하는 상품이라고 해도 무조건 소개하기 보다는 손님과 잘 맞는지부터 꼼꼼히 따지는 편입니다. 장점만을 내세우지 않고 단점까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죠. 솔직하고 정직하면 신뢰는 덤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94년도에 외환은행으로 입사한 임 차장은 외환과 수신, 기업 외환을 거쳐 현재 신영통지점 리테일 팀장으로 VIP상담의 업무를 맡고 있는 서비스 베테랑. 무엇보다도 임 차장이 입사 후 줄곧 지켜온 것은 ‘손님에게는 솔직하고 정직하게’라는 원칙이다.

임 차장은 우선 손님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상품이나 절차에 대해 의구심이 들면 계속 파고 들며 연구한다. ‘내가 이해되어야 손님도 이해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 손님에게 추천하는 상품은 ‘직접 가입해본다’는 원칙도 지키는 편이다. 직접 발을 들여놔야 상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손님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어서다.

최근 통합 이후 시너지 효과로 “손님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으로 다양한 기회를 좀 더 편리하게 서비스 해드릴 수 있어서 뿌듯하다”며 함박웃음을 보였다. 덕분에 분주한 업무에도 신바람이 넘쳐보였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더 강화해 한층 더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손님들에게 드릴 것”이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행복메신저
에피소드

해외직접투자자와 관련해 거래가 없던 손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과정이 복잡하고 해외지점과 연락을 하는데 시간대가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으며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몇 달 후 손님의 배우자가 방문해 기존 거래지점이 아닌 저에게 본인의 퇴직금 운용을 맡긴 것입니다. 본인도 아니고 기존 타점을 주 거래로 하던 배우자에게 저를 소개한 것이죠. 은행 업무라는 것이 어떻게 인연이 될 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좋은 경험이었습니.

노후준비를 위한 TIP

1. 돈에 이름을 붙이자.

노후에 본인이 원하는 생활비를 계산하고,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면 별도로 ‘노후 자금용’으로 분류해 관리하자.

2. 가능한 빨리 연금(국민연금, 개인연금)에 가입하자.

고령화 사회 및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큰 강점이 아닐 수 없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상지급방식이고, 개인연금은 빨리 가입할수록 불입금액과 노후에 받게 되는 금액에서 유리하다.

3. 수익률을 높이자.

저금리 시대 무작정 저축만을 해서는 목적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장기투자에 유리한 적립식 펀드 등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노후자금 마련에 적합하다.

행복메신저
TIP

지출축소를 통한 추가저축과 더불어 주.택.연.금의 활용 필요

회사원 H씨(만 46세)는 가정주부 부인과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다.

H씨는 근로소득이 높은 편이지만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이 어려우며,

자녀 2명에게 들어갈 교육비 및 결혼비용 등을

생각하면 은퇴 후에도 현재와 같은 생활이

가능할지 고민인 상황이다.

또 은퇴시기를 55세 정도로 생각하고

85세까지의 미래설계를 원한다.

H씨의 안정적 노후를 위한

자산포트폴리오 운용 방법은 무엇일까.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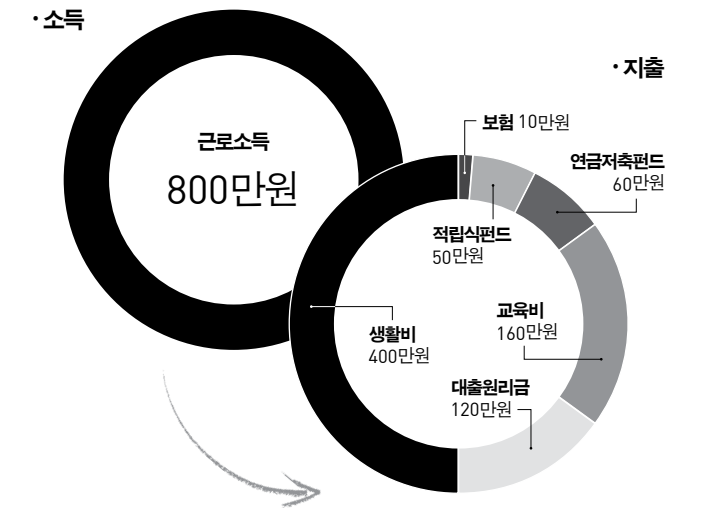
회사원인 H씨(만 46세)는 가정주부인 부인과 중학교 3학년생 자녀,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현재 H씨는 부동산자산으로 약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으로는 연금저축펀드 등 연금자산 9,000만원이 있다. 부채로는 아파트 구입으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 1.5억원이 있다.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월 8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반면 생활비 400만원, 대출원리금 120만원, 교육비 160만원, 연금저축펀드 60만원, 적립식펀드 50만원, 보험 10만원을 매월 지출하고 있다.

H씨는 근로소득이 높은 편이지만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이 어려우며, 자녀 2명에게 들어갈 교육비 및 결혼비용 등을 생각하면 은퇴 후에도 현재와 같은 생활이 가능할지 고민인 상황이다.

현재 재산 및 소득흐름

• 자산	아파트	3억 원
	연금저축펀드	0.7억 원
	일반연금 등	0.2억 원
• 부채	주택담보대출	1.5억 원
• 순자산		2억 4,000만 원



55세에 은퇴할 예정이며

노후 생활비로 월 300만원 희망

H씨는 은퇴시기를 55세 정도로 생각하고 85세까지의 미래설계를 원한다. 현재 H씨 부부는 생활비로 40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나, 은퇴 후에는 300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H씨 부부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65세부터 매월 약 148만 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55세부터 10년간 월 283만원씩 수령할 계획이며, 개인연금은 55세부터 10년간 243만원씩 수령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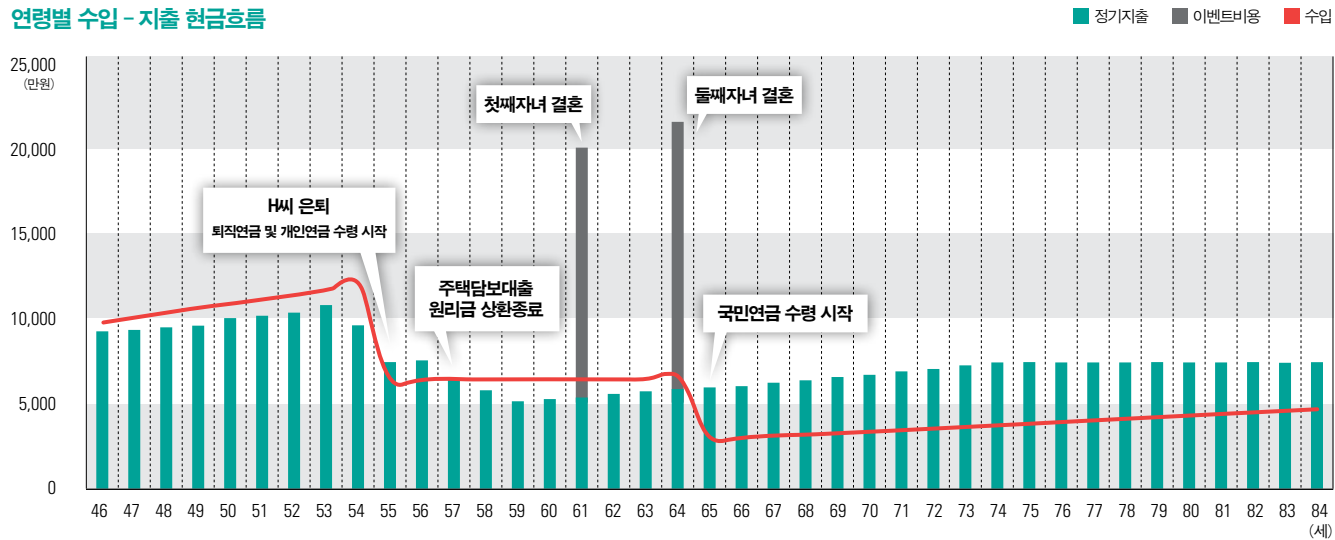
H씨 부부의 은퇴 준비 상태 파악을 위해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¹⁾을 살펴보면, 은퇴 직전인 54세까지는 지속적인 여유자금 발생을 알 수 있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급 전인

64세까지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생활하게 되는데, 둘째 자녀가 대학을 다니는 시기인 55~56세와 자녀들이 각각 결혼을 하는 시기인 61세와 64세에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이후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65세 이후부터는 자금부족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금 부족 구간에 기존에 확보해 둔 금융자산을 활용해야 한다.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을 종합해보면 은퇴 시기인 55세를 기준 시점으로 할 때 현재부터 H씨 은퇴전인 54세까지 약 1억원 정도의 금융자산이 확보되는 반면, 은퇴 후 부족자금은 약 13.4억원이 예상된다. 따라서 총 12.4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1) 물가상승률은 2.5%를 가정하고 수입은 근로소득과 연금이 포함되며, 지출은 생활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포함. 한편 고령으로 접어들수록 필요 생활비가 적게 소요됨을 감안하여 75세부터 발생하는 노후생활비는 물가상승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



지출 축소, 주택연금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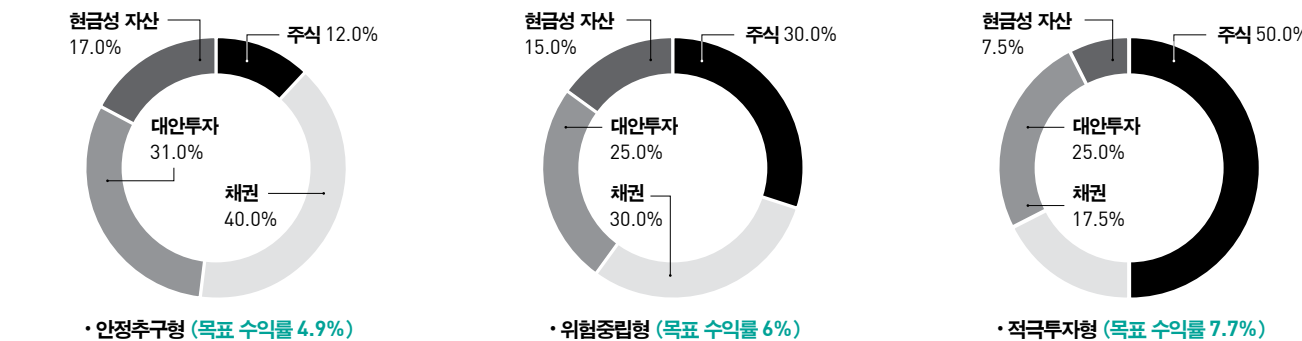
금융자산의 '안정 추구형' 운용을 통한 노후 준비

앞서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을 살펴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 전까지 확보되는 자산의 규모에 비해 은퇴 후 필요한 금융자산의 규모가 매우 크다. 기존 노후 준비 및 지출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고 부동산자산의 활용 없이 금융자산만으로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향후 금융자산을 매년 13.7%의 수익률로 운용해야 한다.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의 목표수익률이 대략 7.7%라는 점을 감안할 때 13.7%는 매우 높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 지출을 줄여 추가적인 자금을 마련하거나 예상 노후 생활비를 축소해 필요 자금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 또한 금융자산 외에 부동산자산을 현금화하여 노후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녀 2명을 키우고 있어 당장 지출을 줄이는 것의 어려움을 감안해 현재 지출은 유지하되, 노후 생활비를 일부 줄이는 것을 고려해보자. H씨가 예상하는 노후 생활비 월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한다고 가정하면 금융자산 목표수익률이 10.2%로 낮아진다. 하지만 동 수익률도 다소 높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현금화를 고려해보자. 부동산자산의 현금화에는 담보대출을 받거나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안정성 측면을 고려할 때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주택연금의 경우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고 본인 및 배우자 사망 후 정산 과정에서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을 경우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씨의 경우 은

퇴 후인 55세부터 64세까지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필요한 노후 생활비 이상을 충당할 수 있어 동 시기에 주택연금을 활용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국민연금만을 수령하게 되는 65세부터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65세부터 중신지급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현재 기준 매월 약 81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매월 148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후 생활비를 소폭 줄이고 주택연금까지 활용하면 금융자산에 대한 목표수익률이 8.4%까지 낮아지게 된다. 동 수익률은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의 목표수익률과 유사한 수준이며, H씨가 금융자산의 운용에 관심을 가진다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동 수익률 달성이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기존 지출을 줄여 저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4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50만원을 줄여 이를 모두 노후 준비를 위해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금융자산의 목표수익률은 5.2%까지 낮아지게 된다. 안정 추구형 포트폴리오의 목표수익률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다. 최근 미(美)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투자로 목표수익률을 높이려 하기보다는 다소 힘들더라도 현재 지출을 줄여 추가적으로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 주 :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머니TALK'를 통해 매월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 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포트폴리오 제시
- 자료 : 하나금융투자, '머니TALK', 201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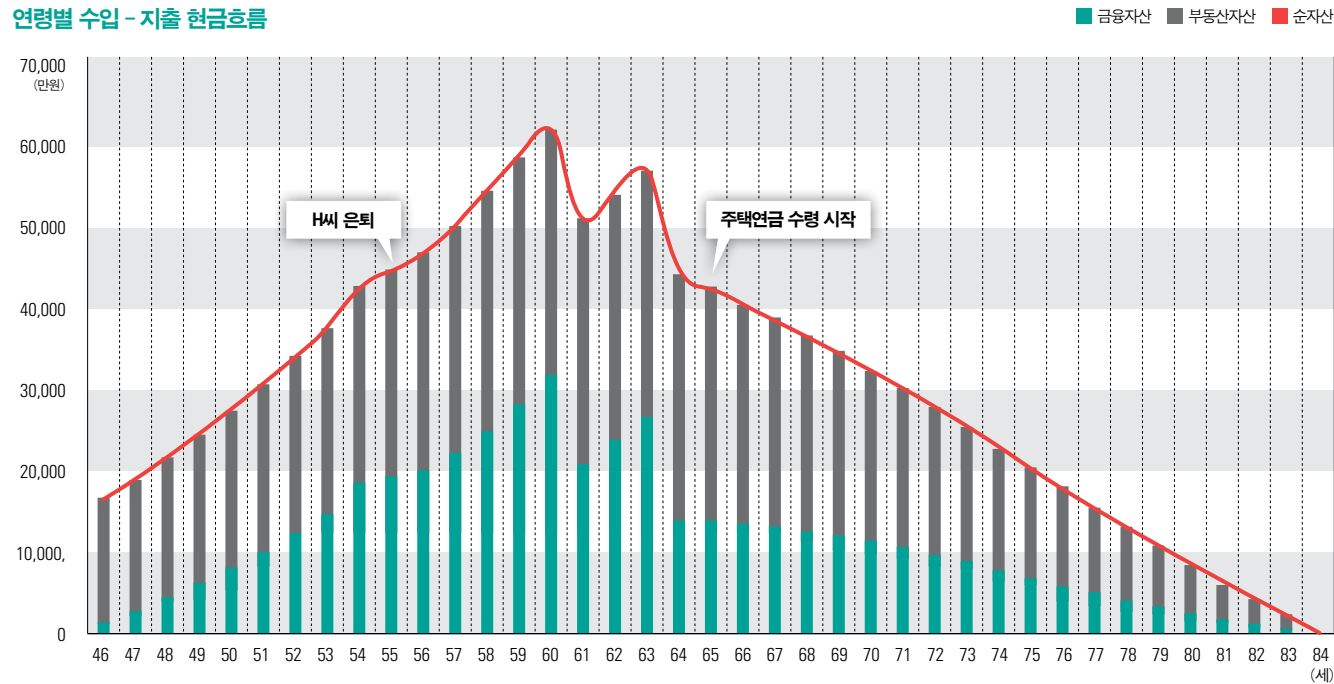
노후 준비는

아무리 빨라도 지나치지 않음

H씨는 현재 소득은 많으나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지출이 많으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은퇴 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적다. 따라서 원활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최대한 보유 금융자산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택연금과 같은 부동산자산 유동화를 통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H씨와 유사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후 준비는 먼 미래에 일이라 미루지 않고 최대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와 현금 흐름을 분석해보고 노후 준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



자녀에게 재산을 주지않겠다는 유언, 효력이 있을까?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뒤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이다.

하지만 유언이라고 해서

모두 효력을 얻는 것은 아니다.

유언의 방식과 내용이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만

효력을 얻는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언제나

나중에 한 유언이 유효

자필유언, 녹음유언,

공증유언, 비밀유언,

구수유언 등

다섯가지

기여분은

유언사항이 아님

재산분할 금지

유언은 5년의 기간까지만

유효

최근 유언 상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재산분쟁을 막는 1순위 법률장치가 유언인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변화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유언은 자신의 의사를 그대로 쓰는 것만으로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일례로 주소를 정확하게 적지 않은 자필유언은 효력이 없다. 또한 유언은 법이 허용하는 것만 할 수 있다. 이를 ‘유언법정주의’라고 한다. 그렇다면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법이 허용하는 사항만이 유언으로 인정받아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법률행위’라고 정의된다. 이를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즉, 유언자의 사망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언자는 사망 전 언제든지 그 유언을 반복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유언 반복의 자유는 절대적이다. 따라서 오늘 한 유언과 내일 한 유언의 내용이 다르다면 ‘언제나’ 나중에 한 유언이 유효하다.

둘째, 유언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민법이 허용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다섯 가지가 있다. 위 다섯 가지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 방식은 효력이 없다. 예를 들어 컴퓨터로 타자를 치고 서명한 한 유언은 자필유언도 아니고, 공증받은 것도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 또한 복사한 유언장도 자필유언이 아니므로 무효이다.

셋째, 유언은 ‘법이 허용하는 것’만 할 수 있다. 유언자는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지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장남에게 아파트를 준다’, ‘딸에게 상가를 준다’와 같은 유언이 그 예이다. 이 외 유언이 가능한 사항으로는 ‘친생부인’, ‘인지’, ‘재단법인의 설립’,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들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법이 허용하는 것 이외’의 사항은 유언을 해도 그 효력이 없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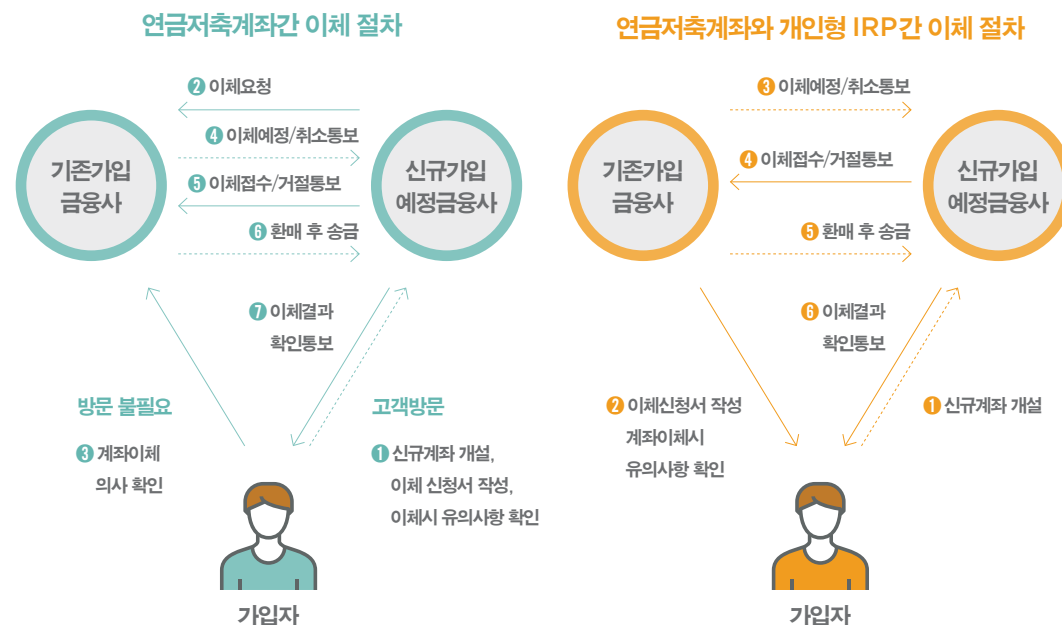
예를 들어, ‘기여분’ 지정은 법정 유언사항이 아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하는데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 이를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하는 제도’이다. 민법에 따르면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기여분 결정방법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이므로 유언으로는 기여분을 지정할 수 없다.

그럼,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하는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 상속재산 분할금지에 관하여 민법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라고 유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분할금지 기간이 5년을 넘을 수는 없다.

연금계좌 이체

지난해 연금저축계좌간 간편 이체가 가능하던 이어 7월 초부터는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간 이체, 개인형 IRP간 상호 이체도 가능하게 된다. 2013년 처음 연금저축계좌간 이체가 가능해진 이후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이는 정책당국이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사적연금이 개인들의 노후 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고려해 가입자들이 연금자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연금계좌 이체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간 계좌 이체는 가입자가 55세 이후이고,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을 경과할 경우 누구나 가능하다. 그리고 5년을 경과하지 못했더라도 이연퇴직소득이 이체하는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반면 계좌 이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연금수령 중인 계좌로의 이체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연금수령 중인 계좌에서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계좌로는 이체가 가능하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를 제외한 상호간 이체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압류, 가압류, 질권 설정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좌는 이체가 금지되고, 금융사에서 약관대출, 담보대출 등이 있는 경우는 당해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이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한 경우에 한해 이체가 가능하다. 이체하고자 하는 계좌의 이체 범위는 계좌 내 일부 금액의 이체만은 불가능하고 전액 이체만이 가능하다. 한편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간 이체를 하고자 할 경우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 이체와 달리 신규 가입예정 금융사뿐 아니라 기존 금융사도 방문해야 한다. 신규가입예정 금융사를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가입금융사를 방문해 이체신청서의 작성과 계좌 이체 시 유의사항을 확인 후 서명으로 절차가 완료된다. 따라서 분산된 연금자산을 한곳에 모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거나 기존 금융사의 서비스에 만족을 못한 가입자라면 이번 기회에 연금계좌 이체를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이체 거래만 해도
다양한 금융 수수료 면제!**

새출발 KEB하나은행이 드리는 통합기념 선물

**행복 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

대한민국 1등 은행
KEB 하나은행

국내은행 중 자산규모 1위(2019년 6월 금융감독원 자료 기준)

행복한 내일을 설계하는 평생 주거래 우대 통장

① 전자금융수수료 무제한 면제!

급여, 연금, 카드대금,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중 1개 항목만 이체해도 전자금융수수료 무제한 면제!

② 통합 행복Together 적금 금리우대!

급여 또는 연금 이체 시 통합 행복Together 적금 금리 우대 (연 0.1% / 1년제에 한함)

※이 예금은 예금지보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또는 KEB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바랍니다. 본업감시인 심사필 2015-광고-3054(2015.09.18)

생각을 그리다, 비주얼 씹킹

‘미래의 문맹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지를 모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21세기 레오나르도 다 빈치라고 불리는 라즐로 모홀로 나기의 얘기다.

이제는 이미지로 말하는 시대다. 이미지로 생각하고, 이미지로 대화하는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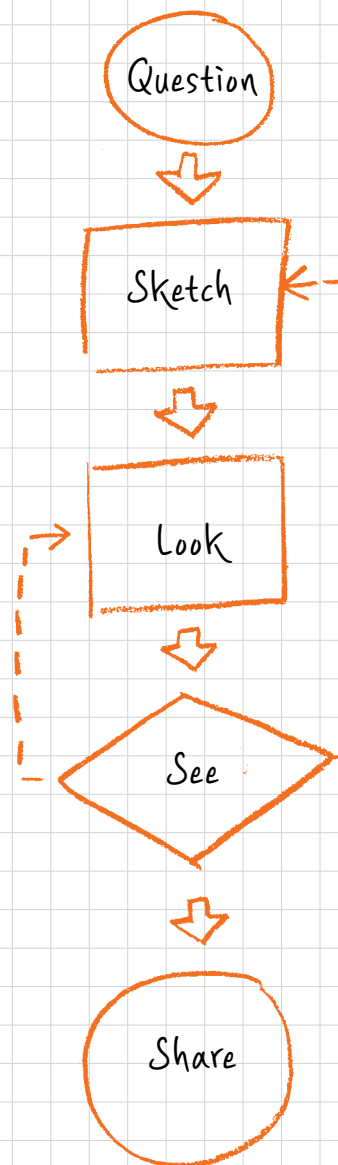
비주얼 씹킹(Visual Thinking)에 대해 살펴보자.

이미지와 단어로 생각을 정리한 대표적인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 빈치다. 그는 스케치 노트광이었다고 한다. 평소 간단한 메모와 스케치로 생각을 발전시켰던 그는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매일 밤 달하는 성문 위를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린 스케치는 헬리콥터 프로펠러 설계의 토대가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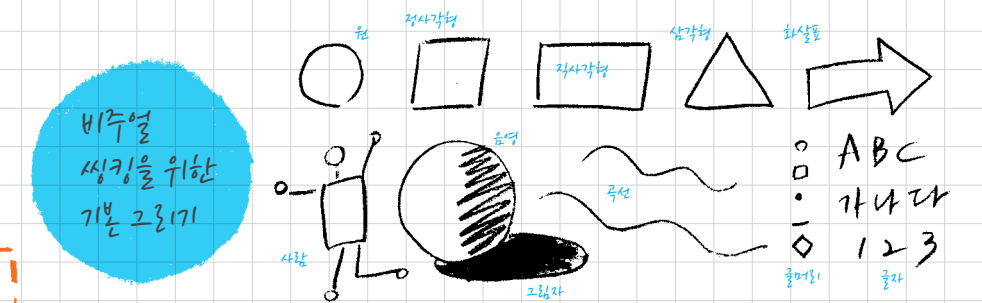
비주얼 씹킹(Visual Thinking)은 글과 그림을 함께 사용해 생각을 정리하고 정보를 요약하는 스킬을 말한다. 문자, 도형, 화살표, 사람 등의 간단한 그림으로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과거 이집트에서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다. 언어가 다르고 글자가 없던 그 시절,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고, 위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이미지로 만들어진 글자, 이집트 상형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처럼 비주얼 씹킹을 이용하면 이해가 빨라지고, 공감대 형성이 쉬워지는가 하면, 의사결정 속도도 빨라진다. 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설득력도 높아진다. 그렇다고 ‘그림 그리기’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림을 못 그린다’며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다. 비주얼 씹킹에 사용하는 그림은 미술시간에 그리는 복잡한 그림이 아니라 간단한 도형들로도 충분히 생각을 이미지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비주얼 씹킹의 핵심은 단순화”라며 “생각이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핵심을 단순화해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강조한다.

비주얼 씹킹을
위한
5단계 프로세스



- **질문하기** : 개인 생활에서 정리, 계획이 필요한 항목을 정하고 한 줄의 질문으로 만든다.
- **그리기** : 아이디어를 스케치로 표현한다.
- **살펴보기** : 스케치를 살펴보면서 추가할 아이디어를 그린다.
- **발견하기** : 연결시키고, 뒤집어 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한다.
- **공유하기** : 다른 사람과 공유해 그들의 생각을 반영한다.



1. 기본 도형을 그린다. - 세모, 네모, 동그라미, 화살표 등
2. 사물과 사람을 그린다. - 자동차, 택시, 스틱맨, 표정 등
3. 표와 그래프를 그린다. - 선, 그래프, 도표, 프로세스 등
4. 연습한 그림은 버리지 않고 보관한다.

Visual Thinking 연습하기

- >> 책을 읽은 후 인상 깊었던 내용을 적고 그림을 그려보자.
- >>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의 표정과 효과를 활용해 표현해보자.
- >> 나의 이름을 도형과 이미지를 넣어서 꾸며보자.
- >> 자전거와 같은 주변에 있는 사물을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분해해서 관찰한 후 그려보자.

참고 문헌 :

Visual Thing으로 하는 생각정리의 기술(영진닷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진호의 비주얼 씹킹(한빛미디어)



건강 해법, 호르몬에서 찾다

과유불급(過猶不及). 모든 일이 그렇지만 호르몬에 있어서는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게 제일이다.

우리 몸의 윤회유, 호르몬만 제대로 알고 잘 관리한다면 노화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힘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하면 아름다워진다', '스트레스로 살이 찐다' 등의 이야기를 한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객관적인 원인이 있다. 바로 호르몬 작용과 관련이 깊다.

걱정이나 고민으로 밤에 잠을 못 이룬 적이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돼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하게 되고, 늘 긴장한 상태가 되어 집중력도 떨어지고, 신경도 예민해진다. 코르티솔은 지방산과 단백질을 당으로 분해해 혈중 포도당을 증가시키고, 신체가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호르몬이다. 또 여분의 포도당은 뇌

에 공급돼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코르티솔이 과다분비하게 되고 이는 과한 식욕을 불러일으켜 비만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코르티솔이 부족하면 근육이 약화되고, 식욕이 없어지며 온몸이 피로해진다. 또한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줄어들어 성욕이 떨어지고, 근육량도 줄어들며, 피곤해진다. 이처럼 대사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고혈압과 당뇨, 심혈관계 질환에 쉽게 노출이 된다.

내분비샘	호르몬	기능
뇌하수체	생장 호르몬	생장 촉진
	바소프레신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 촉진
갑상샘	티록신	물질 대사 촉진
부신	아드레날린	심장 박동 촉진, 혈당량 증가
	코르티솔	포도당 합성 촉진, 염증 완화
이자	인슐린	혈당량 감소
	글루카곤	혈당량 증가
난소	에스트로겐	여성의 2차 성징 발현
정소	테스토스테론	남성의 2차 성징 발현

T.I.P

호르몬에서 찾는 건강 해법

1.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인간의 체온은 새벽 2시 정도에 가장 낮고, 이후 체온이 점점 올라가서 오후 2시 정도가 가장 높다고 한다. 우리 몸은 하루를 주기로 반복적인 체온 조절이 이뤄지는데, 일찍 일어나 몸을 움직이면 체온이 높아지고 뇌 혈류도 활발해져 뇌의 모든 부위가 활발하게 활동한다. 아침에는 잠자는 시간 동안 분비해둔 아세틸콜린과 도파민 등 쾌감물질이 방출돼 기분 좋게 몸을 움직이고 싶은 의욕이 샘솟는다.

2. 하루 10분 일광욕 습관을 길러라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는 계절, 햇볕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적당한 햇볕은 아름다움의 필수 요소다. 왜냐하면 각종 여성호르몬의 분비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햇볕을 정기적으로 충분히 쬐면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져서 여성만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함께 최중 효과도 촉진한다. 오랫동안 햇볕을 쬐지 않아도 된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다.

3. '바흐의 클래식'으로 코르티솔 줄이기

음악은 두뇌를 자극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긴장을 완화하고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도와준다. 일반적으로 두뇌는 타악기나 계속 반복되는 멜로디에는 잘 반응하지 않는데, 편안한 클래식에 우리 뇌는 유난히 잘 반응해 호르몬을 잘 분비한다고 한다. 음악연구소 전문가들은 클래식 중 바흐의 음악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꿀재미를 찾을 수 있는 '어른이'를 위한 장난감

모처럼 쉬는 날을 맞아 낮잠을 청하던 직장인 미영 씨. 갑자기 요란스런 굉음에 눈을 떴다. 무슨 일인가 싶어 베란다로 나가 보니 40~50대로 보이는 어른들 서너몇이 공터에서 무선 자동차 경주에 열중하고 있었다. '애도 아니고 참나...'라고 생각하며 돌아서는 미영 씨의 침대에는 심슨 가족 피규어가 아기자기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피터팬이 되고 싶은 어른들이 많아져서일까. 어른을 위한 장난감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만의 공간이었던 토이저러스 매장에는 별도로 어른을 위한 장난감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어른 10명 중 7명이 아이들의 장난감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기도 했다. 한 쇼핑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른 10명 중 4명 이상이 아이 또는 조카 핑계를 대고 장난감을 사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구입 경험과 관계없이 '아이용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무려 72%에 이르렀다.

론지(londji)라는 인터넷 쇼핑몰은 아예 브랜드 컨셉을 '3세부터 103세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으로 잡고 아날로그 감성이 흐르는 장난감을 선보이고 있다.

20~30대뿐 아니라 이제는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장난감이 주는 즐거움에 흠뻑 빠지는 이들이 늘고 있다. 더 이상 어린이만을 위한 전유물이 아닌 장난감. '어른이'를 위한 흥미로운 장난감을 살펴보자.

'어른이'를 위한 장난감 BEST5

01 피규어 수집

인스타그램을 조금 한다는 사람들은 한번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규어 사진을 올린다. 어른이나 아이, 남녀, 혹은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좋아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피규어는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표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인테리어로도 안성맞춤인 피규어 수집. 요즘엔 작고 귀여운 피규어들이 많이 나와서 취향을 저격한다.

02 프라모델 조립

연예인들도 많이 갖고 있는 취미 프라모델 조립. 프라모델 조립 중 가장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담 프라모델은 초보를 위한 것부터 고수를 위한 것까지 다양하다. 설명서만 보고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퀄리티 있어 보이는(?) 완성품을 만나게 된다. 프라모델 조립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쉬운 것부터 조립하며 재미를 느끼고 점차 어려운 것에 도전해 본다. 단, 통장 털릴 각오 하고 입문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03 직소퍼즐

직소퍼즐은 밀판 없이 맨바닥 위에서 완성해가는 퍼즐로, 처음부터 스스로 퍼즐을 맞춰 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판퍼즐처럼 사각형 틀에 갇히지 않은 다양한 모양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다. 퍼즐 맞추기만큼 시간 잘 가는 취미도 없는데 요즘엔 직접 제작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킬링타임의 킹 오브 킹이라고 할 수 있다.

04 나노블럭

기존 레고보다 훨씬 조그마한 나노블럭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탓에 킥덜트 취미로 급부상중이다. 집중력도 집중력이지만 소근육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어른이나 수전증이 있는 어른이라면 나노블럭 작품 하나를 만드는 것은 대단한 도전이 될 것이다. 참고로 네이버 나노블럭밴드에는 80% 정도가 어른들이다.

05 레고

어른이를 위한 장난감 중 '갑 중에 갑'이 아닐까. 레고는 두터운 마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어른이 장난감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다. 오죽하면 레고를 위한 '레테크'가 있을까. 레고는 장난감의 수준을 넘어서 이미 멋진 예술 작품이 되기도 하는데, 그 정도 경지에 오른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한다. '어른이 되어서 조심해야 할 일은 비단 도박만이 아니다' 하나하나 사 모으다 보면 방 하나 채우는 건 금방이다.

개인연금법 제정된다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최근 정부는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을 발표했다.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연금의 양적 성장은 이뤄졌지만 연금 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연금관련 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예상되는 그 영향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위는 최근 현재 상품별로 관리되는 복잡한 연금관련 제도를 정비해 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법을 제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연금 적립금은 2015년 말 기준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세제적격 108.7조원, 보험사의 즉시연금 등 세제비적격 183.5조원을 포함해 292.2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개인연금자산은 세제변화에 따른 상품 단절, 가입자의 유동성 필요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연금 해지율이 3년차 24.5%, 10년차 43.5%로 크게 상승하며 노후 소득인출 재원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금융위의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예상되는 그 영향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보험

신탁

펀드

일임

개인연금법

개인연금법을 기준으로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을
체계적으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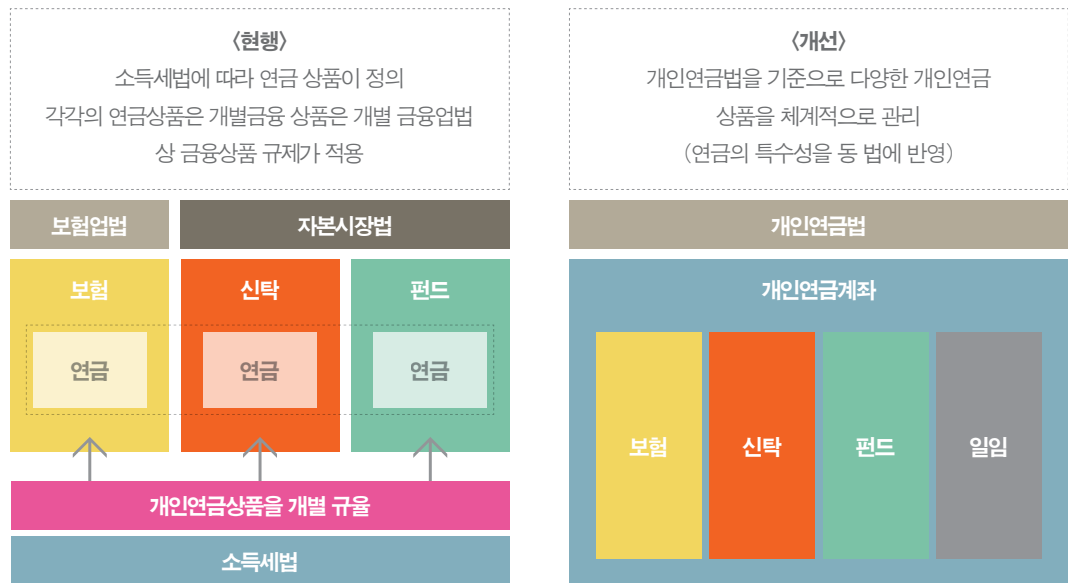
개인
연금계좌



'개인연금계좌'의 도입을 통한 연금자산의 종합적 관리 지원

개인연금법의 기본 제정 방향은 현재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연금상품이 개별적으로 규율되고, 이에 따라 개별금융업상 금융상품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을 개인연금법을 제정해 이를 기준으로 다양한 개인연금상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에 기초해 먼저 가상의 개인연금계좌를 1사 1계좌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해 보험, 신탁, 펀드, 일임형 상품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종합적 자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개인연금상품과 더불어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개인형 IRP 등도 같이 관리가 가능하다. 개인연금계좌를 통해 연금 상품의 가입 및 관리, 기여금의 납입, 연금수령절차 및 방식의 확인, 세제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개인연금계좌와 개인형 IRP 계좌간의 이체도 올 7월 가능하도록 정비되면 개인연금계좌 내에서 한층 더 편리하게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연금법 제정방향



개인연금상품 측면에서는 현행 개인연금 신탁, 펀드 보험 외에 투자일임형 상품이 추가된다. 이는 개인연금 가입자가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처음 가입한 상품을 변경 하는 등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부족, 상품에 대한 지식부족 등으로 인해 관리에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금가입자들의 연금자산관리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연금상품 군에 투자일임형 상품이 추가된 것이다. 그리고 투자일임형 상품을 통해 금융사들로 하여금 모델포트폴리오, 라이프사이클펀드 등을 출시해 가입자들의 니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 상품들은 50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수령 등과 같은 최소요건만 갖추면 출시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가입자들이 자문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뿐 아니라 한층 가입자 보호가 강화되게 된다. 가입자들이 연금상품 가입, 자산운용 등에 대해 자문업자로부터 적합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화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자문수수료에 대해서는 세제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가입자 보호측면에서는 가입자의 성향에 맞는 유형의 상품이 권유될 수 있도록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이 강화된다. 그리고 금융소비자인 가입자의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위약금 없이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연금사업자가 법령, 계약위반 등으로 가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금융사의 입증 책임이 강화될 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된다. 연금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적립금에 대해 압류도 일정부분 제한된다.

개인연금법 제정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선 방향
연금자산관리	금융사의 연금자산 관리기능 미흡	개인연금계좌를 통한 종합적 연금자산 관리
연금상품	신탁, 펀드, 보험만 판매	투자일임 등 금융사의 전문적 관리기능이 포함된 상품 도입
가입자보호	가입자 보호 체계가 상품판매 위주로 규율	판매 외 운용, 연금지급 등 연금특성에 맞는 가입자 보호 체계 구축 및 보완
연금상품 자문강화	전문가에 의한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이 안 됨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공시체계	개별 상품별 공시로 공시체계 일관성 부족	공시 표준화, 채널 일원화 등을 통해 선택권 강화

자료 : 금융위원회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시장 재편 촉진과 더불어 은퇴설계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경험제고 경쟁이 심화될 전망

개인연금법 제정은 개인연금시장을 증권사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트리거 역할을 할 것 것으로 보인다. 개인연금상품에 기존 개인연금신탁 등 외에 일임형 상품이 포함될 경우 현행법상 투자일임없이 가능할 뿐 아니라 등록되어 있는 증권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임형 연금 상품의 허용으로 증권은 연금가입자들이 직접 운용지시를 할 필요가 없는 다양한 모델포트폴리오 상품을 개발해 시장 공략에 나설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7월부터 5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연금을 가입한 경우라면 퇴직연금 개인형 IRP와 개인연금 간 이체가 가능해지는 것도 증권사로의 자금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IRP보다 증권사가 운용하는 일임형 상품이 가입자 측면에서 운용이 편리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업권의 재편과정에서 지난해 개인연금 계좌이동 간소화 시행이후 나타난 현상처럼 은행보다는 보험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금가입고객에 대한 통합계좌를 기반으로 생애설계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경험제고 경쟁이 금융사들 간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연금계좌의 도입으로 다양한 연금 상품의 가입, 연금수령 등이 한 계좌에서 종합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금 상품에 대한 자문 시 자문수수료에 대해 연금 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세제지원이 고려되고 있는 것도 한 배경이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보다 나은 은퇴설계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으로 보여 연금 가입자들은 은퇴설계 등에 관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인 가입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돼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분쟁이 감소될 전망이다. 가입자에 대해 상품권유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가 도입되고, 금융사에서 연금 상품을 가입한 경우 일정기간 내 위약금 없이 가입을 철회할 수 있게 돼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불완전 판매로 인한 분쟁이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시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될 전망이어서 금융사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금가입자들은 금융사로부터 종합적인 생애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가능하면 한 금융사에 자산을 모아 관리해야

먼저 연금가입자들은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연금자산을 한 금융사에 모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상 개인연금계좌는 개인연금뿐 아니라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개인형 IRP자산도 포괄 하여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연금자산이 아닌 전체 연금자산 차원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 상품 자문에 대해 세액공제 등의 방법으로 자문수수료에 대한 세제혜택이 가능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더욱더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금자산을 한 곳으로 모을 경우 가입자들은 상품에 대한 수익률 등 공시내용, 금융사의 노 후 설계 등 생애관련 다양한 서비스의 질 등을 잘 따져보고 자신에게 적절한 금융사를 선정 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사들의 경우는 우선 상품개발 및 자산관리 능력의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향후 일임형 상품이 도입되고, 모델포트폴리오 및 라이프 사이클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경우 가입자들의 위험프로파일, 은퇴시점 등 다양한 속성을 고려해 적시에 상품을 설계하고 개발해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상품에 다양한 위험자산이 편입될 것이기 때문에 위험자산을 관리하고, 가입자의 개인연금계좌와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능력의 제고가 요구된다. 또한 개인 연금계좌를 통해 가입자들에게 은퇴를 포함해 생애전반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컨설팅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전문 인력들은 각 가입자들의 연령, 자산 준비 정도 등과 더불어 비재무적인 요소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애전반에 대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금융당국이 불완전 판매 방지 등을 위해 소비자보호를 크게 강화하고 있어 상담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기 교육프로그램, 보수교육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수익률 및 수수료 등 가입자들이 상품을 비교선택 및 교체할 때 이용하는 정보를 가입자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공시 내용을 표준화하고, 공시채널을 일원화 한다고 했지만 그 동안 공시된 정보들은 전문가들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 금융당국이 연금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연금포털의 정보를 금융사들도 금융소비자들에게 컨설팅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융사들이 공적 및 사적 연금정보를 이용해 종합적인 생애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현재는 가입자만이 통합연금포털에 인증절차를 통해 로그인해야 만이 정보를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적연금 정보는 요청하고 3영업일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는 등 금융사가 가입자에게 종합적인 생애관리 컨설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 행복한 생활을 위한 하나의 생각, 하나멤버스

하나멤버스와 함께하면 당신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가입하면 혜택이 쏟아지는 행복한 멤버십과 만나보세요.



HANA MEMBERS 하나멤버스

하나금융그룹 6개 관계사의 통합 멤버십 서비스. 저축부터 보험 가입, 카드 사용,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거래를 통해 쌓인 하나머니와 제휴사 포인트를 합산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금융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하나멤버스 회원이 되어 다양한 일상 속 행복을 누리보세요.

하나머니란?

연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하나멤버스의 통합 멤버십 포인트입니다. 하나멤버스 가입 고객은 누구나 하나금융그룹금융 거래 및 일반 가맹점에서 하나머니를 적립하고 연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적립해 편리하게 사용한다!
상상하는 모든 게 가능한 **하나머니**

- 연금처럼 ATM출금도 자유롭게!
- 내 계좌로 입금도 안전하게!
- '보내요'와 '주세요'로 친구와 주고받기도 다정하게!
- 가맹점에서 바코드 결제로 간편하게!
- 부족하면 내 계좌에서 충전도 빠르게!
- 다른 포인트와 교환하여 한꺼번에!
- 교통카드 충전도 손쉽게!

Hana Money 1 Click



모바일 Push 팝업에서 하나머니 **사용하기** '클릭'

어디서든
(어디서 써야 하는지 몰라도)

그냥 결제만 하고
(하나머니를 사용한다는 말 없이)

Cashier가
일반 결제 처리만 하면

하나멤버스 앱이
Push로 알려주니까

'사용하기' 한 클릭이면
하나머니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하나머니 잔액 천원 이상 & 매출금액의 20%까지 하나머니 사용이 가능합니다.

쉽고 빠르게 하나멤버스에 가입하세요

모바일 [하나멤버스]
앱 다운로드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가입

하나멤버스
회원 가입 완료!

step
1

>

step
2

>

step
3

www.hanamembership.com

하나멤버스 를 검색해 보세요

Google play App Store



세계경제는
자원수출국의
경기침체로
낮은 성장이 불가피

상반기 세계경제는 유로존과 일본의 적극적인 통화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실물 및 금융시장 불안과 원자재 가격 약세로 인한 자원수출국 부진 등으로 미약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하반기에도 선진국이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경기부진으로 세계경제는 작년(3.1%)보다 낮은 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로존과 일본 등 선진국은 마이너스 금리 등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통화확대 정책으로 완만한 성장을 보일 전망이지만, 신흥국은 원자재 가격 약세 여파와 정치 불안 등으로 자원수출국을 중심으로 부진한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경제는 주택경기과 고용시장 개선으로 경기 회복국면이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성장전망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고용시장 개선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도 미국경제의 개선을 대변하고 있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과 달러화 강세, 저유가 지속 등으로 인한 생산 및 투자 둔화와 금리인상을 전후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미국경제의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美) 연준은 최근 고용지표 부진, 6월 브렉시트(Brexit) 충격 등을 감안해 12월 이후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로존 경제는 재정긴축 완화와 ECB의 공격적인 통화확대 정책, 저유가에 힘입은 내수개선 등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향후 유로존의 경제 회복세는 브렉시트 충격 등으로 완만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저유가 및 정책효과에 힘입어 가계소비와 설비투자가 내수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수출 등 대외교역은 당분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적완화·마이너스 금리 등 ECB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압력이 취약하고 경기회복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물면서 생산 및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경제는 일본은행(BOJ)의 마이너스 금리정책과 저유가 지속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등락을 거

하반기 국내외 경제의 전개방향은?

올해 하반기에는 선진국이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경기부진으로 세계경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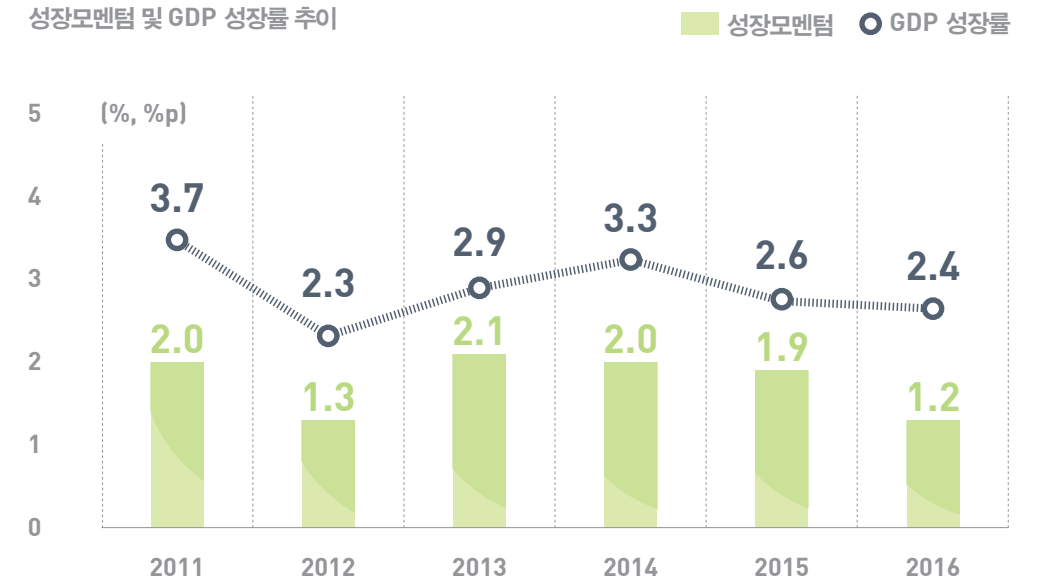
작년보다 낮은 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내 경제는 내수부양 효과 약화로 하반기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경기부양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하반기 국내외 경제 전개방향을 전망해본다.

성장모멘텀 및 GDP 성장률 추이



주 : 성장모멘텀은 GDP 성장률에서 이월효과(지난해 4분기 GDP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시산된 성장률)를 차감하여 계산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내수부양 효과
악화로 하반기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경기부양 요구가
높아질 전망

국내경제는 내수부양책 효과가 악화되고 브렉시트로 소비 및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2.9%)보다 낮은 2.0%에 그치면서 성장 모멘텀이 크게 악화될 전망(연간 성장률도 작년(2.6%)보다 낮은 2.4%에 그칠 전망)이다. 주택분양 호조 영향으로 건설투자가 확대되는 반면, 수출단가 악세와 구조조정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되고 개소세 인하종료로 민간소비가 둔화되면서 전기 대비 0.4% 내외의 낮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구조적인 내수 및 수출부진 흐름과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2017년 경기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우며, 성장모멘텀 미약으로 추경 편성과 추가 금리인하, 개소세 인하 연장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소비는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소비대책과 저금리·저유가 효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Q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정책효과가 사라질 경우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으로 부진이 예상된다. 정책으로 인한 소비 당겨쓰기 효과가 소멸될 경우 ‘소비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산업 구조 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고용시장 악화로 소비심리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비소비지출 증가, 빠른 고령화 등의 구조적인 요인과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실업문제, 전세가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시장 악화 등으로 민간소비의 개선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외 경기불안, 수출부진, 가동률 추락,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설비투자 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 환경으로 금융비용이 감소하고 원자재 가격 악세로 원가부담이 낮아진 영향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한계기업 구조조정 압력으로 설비확충보다 차입금 상환 등 건전성 개선에 집중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2015년 크게 늘어난 분양물량과 저금리 등으로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악화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건설투자 증가세가 내년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중국 등 신흥국
수입수요 둔화 등으로
수출의 회복에
한계가 예상

수출은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유가반등, 원화악세 등으로 부진이 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 등 신흥국의 수입수요 둔화와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 등 구조적인 요인과 브렉시트 충격 등으로 회복에 한계가 예상된다.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 선박, 석유정제 등의 글로벌 공급과잉 현상이 계속될 가능성도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수출뿐 아니라 수입도 내수부진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경상수지는 2년 연속 1,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대규모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저유가에 따른 물가하락 압력이 완화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가 장기간 물가목표치를 하회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초반에 그칠 전망이다. 아웃풋 갭(Output Gap)이 마이너스 상태를 보이는 등 수요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고, 고용여건 악화로 명목임금 상승률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는 요인이다.

하반기 원/달러 환율의 변동요인 진단

구분		진단
펀더멘털	경상수지	대규모 경상흑자 지속
	국내외 경기	국내외 경기둔화 압력 지속
통화정책	대내	한은의 추가금리 인하 여력 제한적
	대외	연준의 신중한 금리인상 미(美)환율 공세
외환수급	대외투자(유출)	대내외 불안 시 대외투자 축소(회수) 가능
	외국인투자(유입)	일시 자금이탈 불가 유입 기조 유지
시장심리	중국 등 대외불안	중국 등 신흥경제의 점진적 안정
	대내 건전성	가계부채 및 구조조정 부담
환율 전망	환율 전망	환율 재안정(3Q↑⇒4Q↓)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추경편성과 금리인하
조합에 대한 기대로
시중금리 반등
제한될 전망

시중금리는 하반기 중 추경편성과 폴리시믹스(Policy mix)에 기반한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이어지면서 반등 압력이 제한될 전망이다. 다만 미(美)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으로 실제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美) 추가 금리인상 시점을 둘러싼 논란 속에 국제 외환시장의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달러 강세 부담과 결부된 연준의 신중한 행보 기대, 국제환율 공조 움직임 등으로 점차 해외환율의 재조정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中 소비 중심의 구조개혁, SDR 편입 등을 감안할 때 위안화의 절하압력도 제한적이며 절상흐름이 재개될 가능성도 높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대외불안 잔존, 국내 경기회복 지연 및 내외 금리 차 축소 등으로 3분기까지는 반등압력이 이어지겠으나 대내외 통화정책 충격 완화, 양호한 대외신인도 등에 힘입어 4분기 이후 하락세가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 열풍, 파급효과는 불확실

재건축 아파트 열풍이 불고 있다. 최근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가 최고가 갱신을 이어가는 등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현장의 뜨거운 열풍을 짚어보고 파급효과를 진단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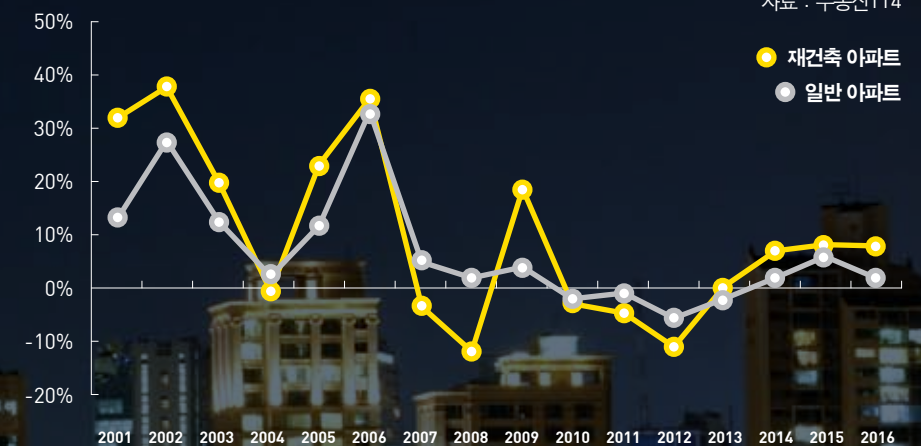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 최고가 갱신 행진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6월 들어 평균 4,000만원을 돌파했다. 작년 말 반포 래미안아이파크가 평당 4,000만원을 약간 웃도는 가격으로 분양했을 때만해도 고분양가 논란이 거뒀지만, 올해 들어 분위기가 급변했다. 지난 3월 분양한 개포지구의 첫 재건축아파트 래미안블래스티지의 중소형 평형 분양가는 4,000만원을 넘었으나 일주일 만에 완판되었다. 대구를 비롯한 지방 주택시장의 경기가 꺾이면서 안전자산인 서울시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려들었고 강남, 서초,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는 4월부터 급격한 가격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평당가가 5,000만원을 넘는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예측도 점차 반향을 얻고 있다.

서울시 아파트 가격 연간상승률

주 : 2015년은 5월까지의 누적상승률을 연간으로 환산

자료 : 부동산114



상승세가 주변으로 확산될 지 관심

재건축 아파트 열풍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와 함께, 시장의 관심은 재건축발 가격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까지 퍼질지에 쏠리고 있다. 재건축발 상승세가 호재가 되어 서울시 주택가격을 전반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가까울 뿐 실질적인 과급효과는 뚜렷하지 않다. 지난 4월 이후 강남·서초·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 시세는 3개월도 되지 않아 평균 5.6%나 올랐다. 같은 기간 용산구(2.6%), 영등포구(2.0%), 금천구(2.0%) 가격이 다소 올랐을 뿐 다른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상승률은 서울시 일반아파트 평균(1.2%)에도 미치지 못했다. 재건축의 열기가 입지에 따라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강남권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재건축을 뺀 일반 아파트는 강남·서초·송파구에서 4월 이후 1.8% 오르는데 그쳤다. 재건축 상승률의 1/3에 불과하다. 강남권 내에서도 재건축 열풍이 다른 아파트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는 셈이다.

아시아 주요 도시와 비교해 서울시 아파트 평균가격은 싸지 않다

아시아 주요 도시와 비교할 때 서울시 아파트 가격은 그리 싸지 않다. 서울시 아파트 평당 가격은 2016년 5월 기준 1,774만원이다. 평당 5,000만원을 넘는 홍콩, 싱가포르, 도쿄는 쳐두더라도 3,000만원에 가까운 대만 타이페이에 비해 크게 저렴해 보인다. 하지만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이들은 아시아 대륙의 거점도시로 각국 부호들이 선호하는 지역(홍콩, 싱가포르, 도쿄)이거나 중국 부호들이 활발하게 투자하는 곳(타이페이)이다. 또한 가격이 비싼 만큼 월세 또한 수백만원에 이른다. 아시아 내에서의 도시 위상, 해외자본의 투자수요, 임대료 등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수준이다.

강남발 상승세 타 지역 가격 견인은 어려워

강남3구의 재건축 아파트는 하반기에도 주택시장의 핫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상품이 없는 희소재에 안전자산의 성격이 강하고, 주택시장 불안감이 커지면서 부동산금이 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남발 상승세가 다른 지역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부유층 주거지가 타 지역과 탈동조화되어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는 현상은 자산쏠림이 심화되면서 세계 주요 도시에서 자주 나타났었기 때문이다. 강남발 호재에만 이끌리기보다는 시장별 이슈를 확인하고 가격추세를 차분히 전망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나를 위한 보장, 가족을 위한 Top3⁺

노후보장을 위한 하나생명 Top3⁺! 가족 생활자금을 위한 Top3⁺!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대리인)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주어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 서명만에 반드시 본인인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 ※ 일시지급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이 보험계약의 매입지보통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되, 보증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계약의 모든 예금보험 대상 금융상품의 예치금(예치금)에 한하여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가산지급금을 합하여 7천만 원(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증하는 계약금(예치금)에 한하여 15,000~0037)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험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보험이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생명 종합보험 가입 보험 계약 080-3488-7000 / 1588-0037

스칸디나비아의 시니어 코하우징

전 세계적으로 코하우징이 처음으로

개발된 곳은 스칸디나비아다. 기대 수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유럽연합

국가들은 노인인구 비율의 계속된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노인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진행돼 왔다.

그중 가장 특징적인 것이 스칸디나비아를

중심으로 개발된 시니어 코하우징

(senior cohousing)이다.



“남편과도 사별하고, 애들도 결혼해서 집을 떠나고 나니 막상 큰 집이 필요가 없더라구요, 관리하기도 벅
차구요. 또래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지낼 수도 있고, 취미활동도 같이 하고 있어요. 각자 자기 공간이 확실
하게 있어서 사생활도 보장되고, 코하우징으로 오길 잘 한 것 같아요”

덴마크에는 전국적으로 다수의 시니어 코하우징이 개발, 운영되고 있다. 주로 미래 주민들이 주체가 되
어 지방정부와 협조해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니어 코하우징은 1980년대 초 처음으로 덴마크 코
펜하겐에 사는 중년층 몇 사람이 모여서 시작한 연구모임에서 유래되었다. 그들은 어디에 살든 모든 노인
이 대면하게 되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피하고 나이가 들더라도 인간적인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기를 희망
했다. 이 연구모임은 만남을 거듭하면서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거
주 방식을 통해 노인홈이나 요양원에 입주하는 기간을 더 늦추거나 아예 입주하지 않기를 희망한 것이다.
물론 1970년대에 이미 덴마크에서는 현대적인 코하우징의 개념이 들어섰다. 시니어 코하우징은 주민들
의 자발적인 공동 활동 참여를 통해 이웃과 인적 교류를 하는 정서적 지원과 생활비를 절약하는 실질적
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니어 코하우징은 건강하고 자립적인 노후 세대를 위한 주거 대안으로 직장

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55세 이상의 주민들이 스스로 주거단지를 구성하고 자발적으로 공동 활동에
참여하면서 생활하는 새로운 노후 주택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스칸디나비아, 네덜란드,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는 많은 시니어 코하우징이 설립돼 있는데, 작게는 8~10명, 크게는 50~100명의 주민을
가진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8명 ~ 100명의 주민을 가진 시니어 공동체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노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주택이다. 오래전부
터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노인들이 자기 집에서 가능한 오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노인주택정책
의 기본이념이었다. 스웨덴의 경우 65~84세 노인의 95%는 일반 주택에 사는데,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반 정도를 차지하고, 5%만이 그룹홈, 요양원 또는 서비스 주택과 같은 특수 주택에서 산다. 이보다 더 고
령인 85세 이상이 되면 일반주택에서 사는 비율이 더욱 감소한다. 시니어 코하우징이라는 공동체로 이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 살던 주택이나 정원 관리가 부담되어서인 경우도
있고, 이웃과의 사회적 교류를 통해 고독감을 덜기 위해서, 그리고 은퇴 후 자신들이 가진 유휴 인적자원
을 활용하면서 생활하기 위해서 등 다양하다. 그들은 한 번 입주하고 나면 최대한 오래 그곳에 거주하기
를 희망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계속 살기 편하게 이동성에 지장이 없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지어진
주택을 선호한다. 그리고 외곽이 아닌 시내 중심지의 편리한 위치에 있고, 디자인이 잘 돼 있는 코하우징
은 더욱 인기가 높다. 시니어 코하우징에서 이뤄지는 전형적인 공동활동의 종류에는 공동 저녁식사, 차
모임, 사고모임, 생일잔치, 일 년에 몇 번 가는 여행, 정원 가꾸기, 취미활동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중
주민들이 가장 즐겨 참석하는 공동활동은 커피나 차 모임이며, 주민들은 차 모임에 매일 또는 적어도 일
주일에 수 차례 정도는 참석한다. 그러나 공동 식사는 일주일에 수차례 또는 1달에 한 번 정도로 공동체
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공동 식사가 이뤄지는 연령 통합형 코하우징
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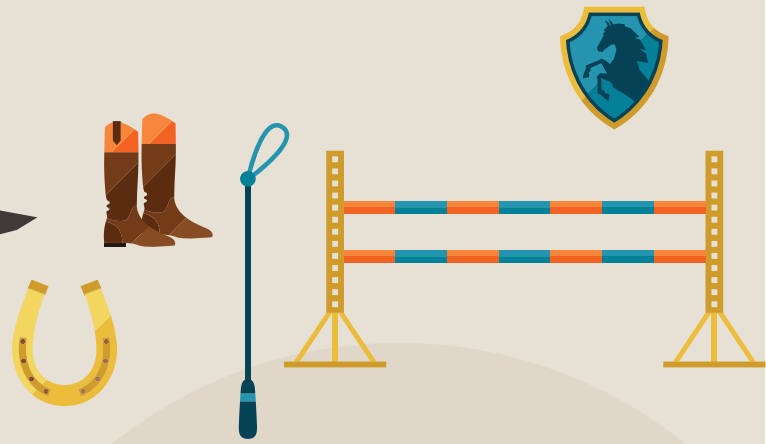
코하우징 선호하는 노령인구 증가추세

이처럼 코하우징을 선호하는 노령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사회정치적인 요인이다. 주민
들은 고령이 되어도 가족이나 지방정부의 보호에 의존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자치성을 유지할 수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사회복지와 주거복지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시니어 코하우징 설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 임대주택 단지의 한 부분에 시니어 코하우징을 건설해 보급하는 경우가 많은
데, 민영보다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희망하는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
해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딘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과 웰빙을
지원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다. 주민들이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나눠 씀
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또 공동으로 신문을 보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식사를 준비함
으로써 환경친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셋째는 경제적인 이유다. 편의시설을 나누고, 서로 서비스와 문
화 활동을 제공하면 제한된 주거비용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 또 식재료를 조합에서 도매로 구입하면 더
저렴하고 정부차원에서도 노인부양에 드는 사회 서비스 비용이 줄어든다.

힘을 위해 경북 영천 운주산에
운영중이다. 온 가족이 함께
승마클럽에는 승마 이외에도
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riding saddle. The saddle is primarily brown with orange accents on the seat, cantle, and stirrup leathers. It features a black stirrup and a silver-colored ring on the cantle.

승마강습은 대부분 쿠폰제로 운영되는데, 보통 10회에 50만~60만원 정도이고, 레슨비는 별도다. 승마를 배우는 비용은 전문 교관이나 승마를 타는 시설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보통 5만~25만원 정도로 다양하다. 월별 승마레슨을 몇 회 받는지, 승마장 시설을 몇 시간 이용하는지에 따라 월 레슨비의 차이가 난다.



- 온퇴 전용 상품 운영
- 비재무 설계 서비스 통합제공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 하나금융투자(주)는 예금자보호법상 부도금융기관이며, 하나 SK카드사는 부도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위험상품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가입 전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지협외 심사표 제14-06798호 2014.10.13~2015.09.28)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금융투자빌딩 12층 | TEL. 02-2002-2200 | FAX. 02-2002-2610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생명, 하나카드